

혁신적 사상 유포에 기여한 읽기 관행의 변화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0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중세지식인의 대다수는 성직자였지만, 점차 속인 가운데서도 지식인이 출현하면서 그 성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들은 특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관행을 바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받아쓰기와 음독의 전통을 깨고 묵독과 스스로 글을 쓰는 행위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중세의 성당은 무식한 사람들의 《성서》였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성당의 유리창이나 벽에 있는 그림과 조각에서 미사 때 들은 《성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기 1000년경부터 로마네스크 양식이 생겨 12세기 중엽까지, 이탈리아나 비잔틴 제국에서는 13세기까지 교회 건축에 영향을 끼쳤는데, 잡종의 괴물, 얼굴을 찡그린 괴물, 공상속에나 있을 여러 모습을 기둥머리나 건물 도처에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을 새김으로 종말, 최후의 심판, 성모승천, 성신강림의 주제를 표현했던 것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수도원 운동과 함께 지역적 다양성을 띠었다. 10세기 초에 생긴 클뤼니 수도원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노릇을 했다.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이 수도원을 본받아 2천여 개 수도원이 생겼고 거기서 1만 명 정도의 수도사가 신앙생활에 전념했다. 그러나 11세기 후반부터 이 수도원의 영화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특히 이 수도원의 사치, 권력지향성, 세속적인 언동에 반발해 1098년 로베르 드 몰레슴이 시토 교단을 세웠다. 클뤼니 수도원 미술이 채색유리에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넣었지만, 시토 교단에서는 무채색 유리를 이용해서 추상적 주제를 그리기 시작했다. 당초문, 얽힘장식

같은 상징적 비유를 세심하게 표현하거나, 흰나리꽃을 도안해서 《성서》를 암시했다.

성당 자체가 책의 역할 말아

이처럼 12세기에는 영광을 표현하는 클뤼니 교단의 미학과 엄준함을 표현하는 시토 교단의 미학이 공존했는데, 거기서 고딕양식으로 넘어가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조짐이 생 드니 수도원에서 나타났다. 드니는 파리의 첫 주교로 부임했다가 258년에 머리를 잘려 순교한 성인이다. 그는 침착하게 자기 머리를 옆에 끼고 파리의 북쪽으로 가더니 별관에 쓰러졌다고 한다. 파리 노트르담 성당 입구에 성자들을 돌을새김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자기 머리를 옆에 끼고 있는 조각이 바로 드니 성인이다. 그가 쓰러진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훗날 메로빙 왕조의 다고베르 1세가 626년에 수도원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생 드니 수도원이다.

1122년 생 드니 수도원장이 된 쉬제르는 그리스 신학자들처럼 ‘신은 곧 빛’이라는 사상을 깊이 믿었다. 그는 1140년부터 성당에 빛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실천에 옮겼다. 고딕양식

의 기본정신이 된 “더 높이, 그리고 더 많은 빛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등근 천장보다는 아치의 경사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어서 천장을 높였고, 벽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채색유리창을 냈다. 유리창은 《성서》에 담긴 이야기와, 성자들의 생애를 들려준다. 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들어오면서 신자들에게 《성서》를 읽어주고, 성당은 그 자체가 책이 됐던 것이다.

13세기까지는 대성당뿐만 아니라 영주의 성도 더욱 발달했다. 부유한 귀족은 전보다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돌과 회반죽으로 성을 짓고, 12세기부터 굴뚝이 출현해 방마다 난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생활이 미약하나마 향상됐던 것이다. 영주와 기사들은 글을 가까이 하기보다 사냥과 전투, 또는 창검술 연마로 나날을 보냈지만, 교회는 비전투원에 대해 군사작전을 금지하는 ‘신의 평화’, 그리고 종교축일이나 매주 금·토·일 3일간 전쟁을 금하는 ‘신의 휴전’을 강요하면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지식인의 세계였다. 농민이나 도시민 가운데 무지렁이도 현실세계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살짝살짝 위반하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머리 속에서 우주를 지었다 허물 수 있는 지식인에 대해서는 더 뭐라 말할 것인가? 중세의 지식인은 무엇보다도 성직자였지만, 점차 속인 가운데서도 지식인이 출현했고, 이들은 책을 읽고 쓰는 관행의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혁신적인 변화 맞은 글쓰기

중세의 책은 대개 가죽종이에 썼다. 채륜이 2세기 초에 발명한 제지법은 사마르칸트를 거쳐 13세기 이후 유럽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책의 물질적 조건은 변화가 없었지만,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은 변해 있었고, 이런 변화는 글쓰기와 독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상의 변화란 다름 아니라 띄어쓰기, 라틴말의 어순변화, 구두점, 그림, 장절의 세분화 따위이다. 단어를 나눠 쓰는 방식은 7세기부터 영국에서 시작돼 11세기에는 프랑스, 로렌스, 독일 지방에 널리 퍼졌는데, 이와 함께 지식인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면서 라틴 말의 순서를 좀더 논리적으로 다듬어낸 결과 모든 생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길을 열었으며, 그것은 묵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묵독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형태는 물론 텍스트의 공간적 구성원리를 눈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독자는 띄어쓰기로 책과 더욱 친밀하게 됐다. 음독을 해야만 뜻을 파악할 수 있던 책이 아니라, 눈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 되자, 저자도 스스로 글을 쓰는 데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졌다.

12세기의 기베르 드 노장은 비서에게 받아적도록 해 책을 썼지만, 점차 스스로 글을 쓰게 되자, 비서가 있을 때는 털어 놓지 못하던 감정까지도 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됐다. 그는 고전고대의 취미로 에로틱한 시도 지었지만, 동료 성직자에게는 감춰다. 그는 수도원장도 모르게 <창세기>에 대한 주해서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을 나중에 이용하기 좋게 장별로 나누기도 했다.

새로운 읽기습관이 가져온 사상적 파장

내면적인 묵독이 14세기와 15세기에는 어디나 퍼졌지만,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음독을 중시했다. 교수가 자신이 쓴 주석서를 큰 소리로 읽어 주면, 학생들은 자기 책을 보면서 그의 강의를 들었다. 우리는 여기서 중세 대학교에 대한 종래의 지식을 수정해야 한다. 학생은 책도 없이 교수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적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 책을 사지 못하는 학생에게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제도도 생겼으며, 중세에는 속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의 강의를 한자한자 받아적는 모습은 오히려 받아쓰기를 하는 장면인



중세성당은 문맹자들의 <성서> 역할을 했다. 사진은 라세모데우르셀 성당의 <영광의 그리스도와 12제자>

**받아쓰기와 음독은
신학과 철학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지만,
11세기부터 묵독과 명상이
널리 퍼지면서
이교적 사상을 채택하기가
유리해졌다. 또한 묵독과
스스로 글을 쓰는 관행은
개인의 사상을 집단의
제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것이다. 수서본에 들어 있는 그림을 보면, 선생이 책을 보면서 강의하고, 학생들은 가끔 예외적으로 서기를 고용해서 공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펜이나 공책을 갖지 않고 자기 책만 앞에 놓고 앉아 있다.

학생은 교재를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전문필경사에게 샀다. 파리 대학교의 필경사들은 13세기부터 원본을 몇 부분으로 나눠 동시에 베끼는 제도(pecia제도)를 이용해 표준화된 책을 빠른 시일 안에 생산해 공급했기 때문에 학생은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책을 구해서 강의에 참석했고, 교수의 복잡한 논증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교도 홀로 하는 독서로

인해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는 당시 대학교 학칙에서 사상이 강의실 밖에서 묵묵히 퍼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당국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다. 13세기의 학칙은 강의실에 금서를 가져오지 못하게 했고, 14세기에는 금서를 적발해서 파괴했다.

1323년, 도미니쿠스 교단의 참사회는 개인이 소장한 연금술 책을 모조리 불에 태우라고 명령했다. 1346년, 파리 대학교는 니콜라 도트르쿠르의 저작을 모두 불에 처넣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신학자와 철학자인 니콜라 도트르쿠르는 <우주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 비판하면서, 사물의 영원불멸성 이론을 내세웠다. 그의 철학은 독창적이긴 해도, 곧 파괴됐기 때문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폈듯이, 받아쓰기와 음독은 신학과 철학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지만, 11세기부터 스스로 하는 묵독과 명상이 널리 퍼지면서 이교적 사상을 채택하기가 유리해졌다. 또한 묵독과 스스로 글을 쓰는 관행은 개인의 사상을 집단의 제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할 때와 13세기와 14세기 새로운 이단이 출현할 때 지적 풍토는 바로 이같은 관행에 젖어 있었다. ●